◆ 인천 혜광학교 시각장애 학생 및 교직원, 자원봉사자 약 80여명은 홍천비발디 파크에서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인 스키를 즐겼다.

나눔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겨울의 향연

시각장애학생들, 도전! 스키 캠프!

"왼쪽으로! 왼쪽으로!"

지난 8일 오후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에서는 스키강사들의 힘찬 외침이 하얀 설원 위에 울려 퍼졌다.

인천혜광학교(교장 명선목) 시각장애학생 및 교직원, 자원봉사자 약 80여명은 자원봉사 스키강사들의 열정적인 외침에 따라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인 스키를 즐겼다.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경험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것이 다반사다.

더군다나 '스키'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다소 고된 강습 과정과 위험성으로 인해 그저 선망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스키체험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삶을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

일반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혜광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전수연 학생(15세)은 "일반학교에서는 오히려 시각장애로 인해 체험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혜광학교에서는 새롭고 신기한 활동을 끊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돼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키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각계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 덕이었다.

조선일보에서 진행한 "재능을 나눕시다" 운동본부를 통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스키 강사 도우미로 함께 참여했고 전맹 및 저시력 등 시력 별로 진행된 안전교육 및 스키강습이 친절하고 섬세하게 강사와 학생의 일대일로 이뤄져 시각장애 학생들의 설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한결 수월했다.

학교는 "스키캠프는 경비가 많이 들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다"면서 "그러나 주위의 따뜻한 온정과 도움의 손길로 최근 들어 스키캠프 실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인천혜광학교는 앞으로 장애수준별, 연령별에 따라 각종 체험 프로그램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장애인들의 부족한 사회적응력을 키워주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명복지재단(이사장 박춘희)의 후원으로 2박3일간 펼쳐졌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

'우리말 다듬기'

▷ '이렇게 바뀠어요!(다듬은 우리말)'

'아이젠(eisen)' ➡ '눈길덧신'

국립국어원은 '등산화 바닥에 부착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등산 용구'를 통틀어 이르는 '아이젠(eisen)'의 다듬은 말로 '눈길덧신'을 선정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이 주일 동안 '아이젠(eisen)'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고자 누리꾼이 제안한 639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듯한 '눈길덧신', '등산설피', '쇠설피', '톱니덧신' 등 넷을 후보로 해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2,147명이 투표에 참여해 '눈길덧신'은 1,273명(59%), '등산설피'는 376명(17%), '쇠설피'는 250명(11%), '톱니덧신'은 248명(11%)이 지지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눈길덧신'이 '아이젠(eisen)'의 다듬은 말로 결정됐다.

▷ 어떻게 바꿀까요?('다듬을 말 투표')

다듬을 말 : '워킹맘(working mom)'

투표기간 : 2월 2일 ~ 2월 15일

보기 : 30대 '워킹맘' 김모 씨는 주로 퇴근 후 늦은 밤에 장을 보기 때문에 재래시장보다 영업시간이 긴 대형 마트를 자주 이용한다.

의미 :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하는 여성'를 일컫는 말이다.

제안결과 : 지난 2주 동안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하는 여성'을 가리켜 이르는 '워킹맘(working mom)'을 대신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519'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은 이 가운데 다음 다섯을 투표 후보로 선정했다.

투표중인 후보어 :

① 두루엄마(육아와 사회 활동을 두루 잘 해내는 여성)
② 벌이엄마(육아를 하면서 벌이를 하러 직장에 다니는 여성)
③ 일터엄마(육아를 하면서 일터에 나가 일을 하는 여성)
④ 직장인엄마(육아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
⑤ 취업주부(육아를 하면서 취업하여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알쏭달쏭 우리말

▷ **'애꿎다'**

「형」①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다.

예그 소리가 때로는 온밤 내내 계속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날이면 애꿎은 이웃들은 별도리 없이 잠을 설치고 마는 것이었다. 〈이동하, 장난감 도시〉

② (주로 '애꿎은' 꼴로 쓰여)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농민군들은 몰려다니며 실없이 동헌 문짝을 있는 대로 열어젖히며 애꿎은 문짝만 걷어찼다. 〈송기숙, 녹두 장군〉

▷ **'바람꽃'**

「명」 큰 바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먼 산에 구름같이 끼는 뽀얀 기운.

예멀리 둘러선 높직한 산들이 바람꽃에 뿌옇게 싸여 있는 게 마치 하암리 김가네 기와집 안방에 둘러친 병풍 속의 그림 같아 보였다. 〈전상국, 하늘 아래 그 자리〉

▷ **'미욱스럽다'**

「형」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데가 있다.

예나는 그 이상한 행복감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도 아까웠지만 신생아실에 전혀 매혹당하지 않는 친구의 미욱스러움이 혐오스러워 거기까지 따라온 것을 후회했다. 〈박완서, 해산 바가지〉 [참] 매욱스럽다.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정리 양원석 기자

※ 본지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어와 국적을 알 수 없는 신조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래어의 사용으로 인해 점점 더 잊혀져 가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늘리고자 '알쏭달쏭 우리말'을 연재했습니다.

다음 호 부터는 기존의 숨겨진 우리말과 함께 우리말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우리말의 어원과 헷갈리기 쉬운 올바른 사용법, 외래어와 신조어 바로알기, 남북한 말 비교 등을 포함한 '참 좋은 우리말'을 진행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